

## 문자문화와 무문자문화의 갈등과 화두선

박 성 배\*

오늘 강연의 제목을 먼저 간단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인류의 문화, 문명을 살펴 보면, 현재의 문화생활은 철저하게 문자에 의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문자가 문화에 만능은 아니고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그것은 개인마다 다 경험할 것이다. 불교나 유교, 회교 문화, 그리고 서양철학 등 어느 문화의 전통을 보아도 역시 문자문화가 미치지 못한 영역이 그 전통 속에 보인다. 문자의 발견이라는 것은 몇 천년 되지 않은 일이고 우리 인류는 훨씬 더 오래되었다. 그러면 문자가 발견되기 이전의 인류는 문화생활을 안 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겠다. 물론 이 때의 문화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문제가 되겠다.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하는 것을 문화라고 우선 정의를 내려 본다면, 문자가 없었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문자가 나오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덕을 많이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해를 보는 것도 많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양자의 관계 속에서 그 갈등의 면을 추적한 전통도 많고, 그런 개인도 많다. 문자문화와 무문자문화의 갈등,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불교의 화두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강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도 그렇게 정한 것이다.

특히 근래에 와서는 불교에서—나의 전공이 불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용어와 예를 불교에서 많이 빌어 오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옛날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든지 또는 어떤 다른 관계에서든지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관계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하는 제일 큰 일은 문제를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서 “탁 잡는다”고 한다. 요즈음의

\*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 교수

“가슴에 와 닫는다”는 말이 이와 비슷한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겠다. 아뭏든 무슨 발동이 걸리듯이 어떤 문제가 자기에게 ‘턱’ 걸린다. 그래서 이것을 풀지 않고서는 잠도 못 자고 가슴 속에 무슨 웅어리진 한이 있거나 한 듯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한다. 그리고 드디어 언젠가는 그 문제를 푸는 것을 보게 된다.

옛날 사람들은 자기의 지도를 받는 사람에게 문제를 주는 데에 비교적 성공한 것 같다. 그러나, 오늘날 가만히 보면 책도 많이 나왔고, 박사도 많이 나오고, 학자들도 많고, 또 큰 스님도 많고, 모든 것이 더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문제를 주지 못하고 있고, 또 문제 주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된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 강연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그렇게 뽑았을 망정 실제로 여기에서 내가 다루려는 것은 무엇이 스승이 제자에게 주고 또한 제자도 진실되게 가슴으로 느끼는 문제인가를 논의하는 데 치중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교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문제도 아니고, 신선들이나 알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사람이면 누구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식하든 무식하든, 종교가 있건 없건, 불교를 믿건 안 믿건간에 인간이면 누구나 문제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 한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아 그렇구나 하고 공감하고, 그리고서 그 문제를 풀려고 자기 스스로 애쓰는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은 꼭 불교의 신앙을 가져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불교의 지식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면 누구든지 가능해야 한다. 그런 착상에서 이런 얘기는 불교의 용어를 쓰지 말고 불교의 이론도 빌리지 말고, 누구든지 알고 있는 얘기 가지고 결국 문제만 우리가 들추어 내면 된다고 생각한다. 지식을 갖자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불교용어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불교교리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실상 쉽지 않은 작업이다.

벌써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일본에서 사업하던 친척 한 사람이 해 준 얘기를 가지고 운을 떼도록 하겠다. 일본에서는 씨름이—쓰모라고 한다—일종의 국가이자 전국적인 스포츠인데, 최근에 쓰모 선수의 부상률이 상당히 높아져 간다고 한다. 그래서 왜 그런가 연구를 했더니, 그 연구결과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 원래 일본의 쓰모라고 하는 씨름은 일본사람들의 생활에서 나왔다. 특히 정좌 문화, 즉 꿇어 앉는 문화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일본 발음으로 세이사라고 하는데,

땅바닥에 꿰어 앉는 것이 일본 사람에게겐 굉장히 퍼져 있다. 부모 앞에서 반드시 꿰어 앉고, 아롱든 일본인들에게선 꿰어 앉는 것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쓰모의 기술도 결국 꿰어 앉는 일상생활이 밑바탕이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쓰모 선수들의 경제력이 향상이 되면서 집 구조를 전부 서양식으로 바꾸어 침대 생활을 하고 의자 생활을 하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쓰모 선수들이 꿰어 앉는 기회가 일상생활에선 없어진 것이다. 다만 쓰모 도장에 가서 쓰모 수련을 받으면서 꿰어 앉는다거나 예의를 갖추느라 꿰어 앉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니까, 꿰어 앉는 것이 자기의 다리 근육에 있어서 원래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동작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기반이 없어져 버리고 기본적인 체력, 꿰어 앉을 때의 근육의 구조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기술만 배우니까 자꾸 부상을 당한다는 보고가 나왔다고 들었다. 그 보고서를 직접 읽어 보지도 못했고 사실이 그런지도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아닌가는 관심사가 아니고, 그 얘기 자체가 뭔가를 깨우쳐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양에서 불교 공부를 학생들과, 동료교수들과 해 보면 분명히 그런게 느껴진다. 동양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불교신자건 아니건 간에 생활 자체에 어떤 불교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이 體가 되고, 이 생활이라는 체에 근거해서, 한 用으로서 불교의 경험, 불교의 이론, 불교의 단어 등 불교 문화가 나온다. 따라서 별로 힘들이지 않고, 불교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것도 생활이 體가 되고 그 위에 불교 문화가 꽃이 피었다는 증거라 하겠다. 내가 있는 뉴욕 주립 대학에서는 한국에서 영문과, 불문과 나온 사람들이 나와 불교 공부를 하러 오기도 하는데, 생전 불교책 한 권도 읽어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한 두 학기 지나면 그렇게 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십 년 정도 저와 함께 공부했던 미국학생들이 당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문과 나오고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한 학기 지나면 나와 비슷하게 대화를 하는데, 자기들은 엄두가 안 나기 때문이다.

일례를 들면 불교에 無念이란 말이 있는데, 콜롬비아 대학의 얀폴스키(Yampolsky) 같은 분은 「六祖壇經」을 번역하면서 無念을 “No-thought”라고 번역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생각이 없음’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무 생각 안 하는 것이라는 말 밖에는 안되지 않는가? 그런데 아무 생각 않고서는 신라 문화가, 중국의 당나라 문화가 나왔을 리가 없다. 기가 막힌 생각을 했기에 저런 문화가 나왔지, 생각 없는 데서 저런 문화가 나왔을 리는 없을 것이

다. 그러니까 이 번역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No-thought”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이다. 암폴스키 같은 사람은 교토대학(京都大學)에 가서 10년 동안 불교공부를 하고 절에서 생활을 한 사람인데도, 자기의 일상생활이 서양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으면서 경전을 볼 때만 불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전을 딱 닫아 놓으면 서양적으로 생활을 한다. 결국 그 씨름 선수와 똑같은 경우이다. 그러니까 번역할 때 無念도 “No-thought”라고 번역해 놓고 자기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번역을 읽고서 미국의 독자들이 「육조단경」의 무념사상을 이해해 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여기서 사상이라는 것은, 사상도 문화의 하나인데, 생활이 體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생활을 엉뚱하게 하고서 사상만 한다고 할 때 쓰모 선수처럼 밤낮 부상만 당하는 것이다. 자기만 부상 당해서 붕대 감고 있는 건 좋지만 그 지도 받는 사람들까지 부상 아닌 부상을 입혀서 평생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건 차라리 죄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기한, “왜 우리의 지도자들이 문제 주는 데 실패했는가?” 하는 문제로 돌아가 보면, 결국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요즘의 지도자들은 옛날 사람에 비해서 생활은 불교적이지 아니면서도 말로만, 글로만, 그리고 가르칠 때만 불교적인 용어와 불교적인 이론을 도입하고, 또 불교적인 사색을 한 듯이 이야기하곤 하니 여기서도 쓰모 선수의 부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가르쳐 주었는데도 제자들이 하나도 자기 속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그건 시간의 낭비일 뿐 아니라 그것도 일종의 부상현상과 비슷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부득이하게 불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결국 24시간 계속되는 생활, 그것이 철학이고 그것이 공부지, 그것이 따로 있으면서 ‘철학한다’,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로워서, 결국 아무 결과도 가져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조금 본론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제까지는 나의 입장이랄지, 내가 왜 이제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다.

한국에는 불교인들이 꽤 많다고 한다. 실제로 많긴 적긴 그건 관심사가 아니지만, 여하튼 이 한국 불교인의 대부분이 조계종과 태고종에 속한다는 것이다. 종파는 약 30여 개 종파가 있지만 대부분이 조계종, 태고종에 속한다. 그런데, 이들 조계종과 태고종은 지도노선으로 볼 때 참선을 강조하는 선종이다. 그리고 선종 중

에서도 일본의 도젠(道元)이라는 사람이 펴뜨렸던 가만히 앉아 있는 默照禪도 아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話頭禪이다. 요즘에 화두라는 말이 김영삼 씨도 쓰는 흔한 말이 되었다고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화두는 다른 말로 公案이라고도 하고, 서양사람들은 일본 발음을 따서 “코안”(koan)이라고도 하고 또는 “코온”으로, 그러니까 옥수수라는 뜻의 “corn”과 같이 발음하기도 한다.

한국 불교가 조계종과 태고종으로 나뉘고 이것은 선종이고, 선종 중에서도 화두, 공안을 가지고 문제를 탐구하는 종파라고 한다면 과연 “화두가 무엇이나?”라고 묻게 된다. 어떤 사람은 ‘수수께끼다’ 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수수께끼라 해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다’라고도 말하는데, 사실 이 화두란 말, 공안이라는 말은 ‘풀어야 할 수수께끼’를 뜻한다. 이 풀어야 할 문제는 제자들이 그것을 풀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이다. 스승, 즉 祖師들이 세워 놓은 關門으로서, 그것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祖師禪이라고 하고 7, 8, 9세기 당나라 때부터 유행해서 송나라 때 와서 11세기쯤 꽃이 피었다.

이 화두선의 시원이라고 하는 조사선이 처음 나올 때가 어떤 때였나 하면, 경전 연구가 굉장히 유행했던 때였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는 대개가 경전에 입각해서 꼭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스승의 답변도 경전에 입각해서 교리를 따지고 역사를 밝혀 가면서 그 질문을 풀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공기였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의 허점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화두선을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종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지 않고 새로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엉뚱한 답변을 했다. 일례로 들면, 예전에는 누가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셨다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하고 아주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질문을 던지면, 답변자는 이 질문에 대해 또한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답변을 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조사선을 하는 선사들, 화두선을 하는 선사들은 어떤 답변을 했나하면, 답변은 커녕 고함을 짹 질렀다. 고함소리에 고막이 터져서 3년 동안을 못들었다느니, 하는 식의 이야기가 많다. 혹은 몽둥이로 질문자를 실컷 두들겨 패 준다. 때론 전혀 알아 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 예를 들면 “無!” 등으로 대답을 한다. 또 손뼉이라는 것은 두 손으로 마주 쳐야 되는 건데, “한 손으로 치는 손뼉을 가져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모습을 얘기해 봐라,” 즉 “父母未生之面目,” 이렇게 말하기도 하

고, 또 “네가 들었던 것, 보았던 것을 다 빼 놓고 얘기해 봐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기도 한다. 이것이 조사선이나 화두선을 하는 사람들의 말투였다.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조사선, 화두선에 대해 몇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 첫째로,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것은 1세기 전후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를 거쳐서 조사선이 나올 때까지는 7, 8백년이 지나서 교리적으로 아주 원숙한 경지에 있었다. 그런데, 조사선을 하는, 참선을 하는, 화두선을 하는 사람들의 이상스러운 행동을 한번 분석해 보고,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역사를 모르고, 경전공부를 안하고 그리고, 교리를 따질 줄 몰라도 불교의 진리는 알 수가 있다.’ 화두선은 우선 이런 운동을 전개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화두선을 통해서 불교의 진리는 유식한 사람의 것에서 일자무식도, 벽사도, 그리고 경전도, 교리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도 문호가 개방된 것이다.

그 다음엔 이제 답변자가 질문자에게 문제를 던져 주었다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 답변자가 질문자에게 던져준 대답은 ‘실컷 두들겨 패 줬다, 고함을 질렀다’ 하는 것인데, 이러한 답변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던져 주는가 하면, 바로 이런 것이다. 두들겨 맞은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니 내가 달마스님이 왜 중국에 왔느냐 물었는데, 왜 나를 두들겨 패는가?” “왜 그렇게 고함을 지른 것인가?”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린가?” 여기에서는 자기의 이제까지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 보았자 소용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간절하게 “왜 그랬는가?” 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문제를 던져 준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던져지고 이제까지의 견문과 지식이 쓸모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들은 무엇인가를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것이 다름아닌 부처님이 가르치고자 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전을 읽어서도 불교의 진리를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선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던짐으로써, 불교의 이치를 알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가 생긴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고, 또 그런 문제를 받아서 나중에는 불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니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뭔가가 감추어진 듯 불분명한 것, 알아 들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 전혀 짐작이 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우선 하면 우리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이 달랐다는 걸 우선 전제로 띄워야 한다.

그때는 불교가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교육기관이었다. 그러니까, 어느 큰 절에 가보면 온통 몇 천 명이 있기도 했다. 즉, 최대의 교육기관이었고, 또 거기에서 최고의 영재들이 모여 그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대학교에 보낼 때 어느 대학에만 들어가면 모든 일이 다 되는 양 여기는 것과 같은, 다시 말하면, 자기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와 존경과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절에서 사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자세가 오늘날 우리가 절을 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고향을 친다거나 무조건 두들겨 팬다고 하면 '도대체 왜 두들려 팬까?' 하는 물음이 풀리지 않아서 잠을 못 자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내 방에 들어온 사람한테 고향을 치거나 두들겨 팬다고 하면 아마 학교 당국에 고발해서 정신병원에 감금했거나 그랬을 겁니다. 끔찍 없이 정신병자 취급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때에는 스승과 제자간의 신뢰라든지 교육기관에 대한 믿음, 혹은 존경 같은 것이 첫째로 거기에 작용을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그런 행동은 우선 분석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맞은 뒤 생각을 할 때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이들은 아무튼, "왜 두들겨 뺐는가?"하고 생각은 하되 이것이, 즉 두들겨 패는 것이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온 까닭을 일러 준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문제를 받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지성적인 질문 앞에 지성적인 답변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자들은 지성적인 답변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지성적인 답변이 나오는 근거를 한 망치로 두들려 부숴버리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땅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을 밀어서 쓰러뜨리려고 하지 않고 그 땅 자체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초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백한 것을 보면 "한마리의 모기가 철로 만든 소를 물어 뜯는 것 같다"는 식으로 그들의 심정을 토로한다. 모기가 철로 만든 소를 물어 뜯을 때 물어 뜯어질 리가 없다. 즉, 이 말은 결국 그 사람들이 두들겨 팬 의미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들은 두들겨 뺐다고 하는 것을 지성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다.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스님이 때린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모르겠다'는 상태가 마치 모기가 철우를 물어뜯는 것 같다. 은산 철벽이다.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동원해 봐도 그것은 풀리지 않는다.' 생각과 의심이 여기에까지 미치고 보니 심지어 불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깨달은 사람, 부처님인

## 12 종교와 문화

데, 그리고 부처님의 도통을 이어 받은 조사들인데, 그런 최고의 경지에 이른 분들까지도 喪身失命, 즉 발불일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얼마 안가서 그 사람은 깨닫게 된다고 기록에 쓰여 있다.

이렇게 조사선이 나오고 화두선을 통해서 천년 동안을 아시아, 동아시아의 불교 문화권 속에서 경전 공부를 안 해도, 교리를 따질 줄 몰라도, 역사를 공부 안 해도 불교의 진리는 알 수 있다는 풍조가 계속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다른 차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해서 사회과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과학적인 훈련에 입각해서 역사와 사회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소위 운동권이라는 것도 형성이 되고 또한 이러한 식의 사회참여가 높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화두를 통해서 불교의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전통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 소위 反話頭勢力이 형성되는 것이다. 민중불교나 실천불교운동 등을 그런 것들의 좋은 예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반화두세력이 형성됨과 동시에 운동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종래의 두들겨 패는 그런 식의 교육방법은 전혀 자기에게 해당도 안되고 또 그런 얘기를 듣고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해도 잘 안되고 하니깐, 특히 지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 동조해서 점점 이 반화두세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대로 나갔다가는 화두선이라는 것은 멀지 않아 멸종 위기에 직면할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반 화두세력들은 자기들이 정말로 불교를 살려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듯이 불교는 역사속에서 화두선이 나오기 이전의 천여년 이상을 교리로써, 불경 공부로써 계승이 되어 왔고, 그 뒤에 화두선이 나와서는 천여년 이상을 또 이어왔는데 이제는 다시 반화두선 운동이 대두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주류가 조계종과 태고종인데 여기에서도 주된 수련, 신앙생활은 화두였다. 그런데 요즘에는 민중불교 본회의에서 화두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불교의 진리를 실천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반화두세력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와야 할 것이 왔구나' 하고 환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화두를 반대할 때에는 화두가 무엇인지 알고 반대를 해야지 내가 해보니까 잘 안된다라는 식의 이유를 가지고 반대해서는 화두선의 맥을 정말로 꿰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화두선의 맥이 정말 꿰어져야 할 것이라면 그야말로 꼼짝없이 숨통을 꿰어야 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반대해서는 숨통을 꿰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세계에서 숨통을 꿰는다는 것은 외형적인 면에서는



죽이는 것이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죽음을 통해서 그 진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면, 죽음과 부활의 구조가 그 내부에 있을 때 운동으로 성공하는 것이지 죽이지도 못하면 부활도 없고 그것은 하나의 소요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반화두 운동을 환영하면서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화두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 이 화두선의 제1특징이 무엇이나하면, 지성을 경계한다는 것이다. 경전이란 것은 분명히 지성 자체를 전제로 하고 문자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전 공부와 무관하게 선사도 될 수 있고 불교계의 지도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전 공부를 중시하는 것은 가짜가 커 나갈 수 있는 온상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본 것이다. 문자를 근거로 해서 씌어진 경전, 그리고 그 경전을 공부할 때의 약점은 이런 것이다. 즉, 내가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험이 있는 사람의 세계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진짜 체험은 언지 못하면서 마치 진짜 체험을 한듯이 착각을 하고, 또 체험을 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 안 하려고 하고, 자기보다 공부를 더 깊이 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시기하고 모략하고 질투나 하고 이런 현상이 마구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화두선의 제1 공헌이 무엇이나 하면 문자가 가지고 있는—경전이란 것이 곧 문자니까—한계를 지적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자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면서부터 그 사명이 구별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계다’라고 하면 시계라는 단어 자체가 시계가 아닌 것으로부터 시계를 구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장도 어떤 문장이든지 구별하는 것이 그 사명이다. 그러니까 구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알고자 하는 것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우리에게서 구별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구별할 수 없는 것이 인간에게는 반드시 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경전에는 다 있다. 말하자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구별을 뛰어 넘는 사랑이다. 구별의 원리밖에 없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인간에게는 구별되지 않는 어떤 면이 있고 바로 그 면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라고 하는 그것이 못 미치는 영역이다. 그 외에도 인간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연의 모습들, 말하자면 평화롭다든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든가—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도 사랑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하는 것들,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나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고, 이런 사랑같은 것은 분명히 구별 가지고는 되지 않

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문자의 사명이 구별이라면 구별가지고는 그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별만 하는 세계는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어디까지는 되는데, 그 경계선을 넘은 것은 흐릿흐릿하니 잘 안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교가 어려운 것은 구별 않는 대목을 자꾸 갖다 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무기는 구별이다. 그리고, 지성이라는 것도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기능하는 것이다. 지성이 연마되었다, 切磋琢磨다 하는 것도 우리의 경우에는 구별이 그 주요 무기이다. 그런데, 그 무기가 맥을 못 추는 대목이 있다는 것이다. 아까 화두선의 경우에는 두들겨 맞았는데, 그 두들겨 맞은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고, 그것이 마치 모기가 철우를 물어 뜯는 듯, 佛祖도 상신실명하는 듯하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도 결국 자기의 지식과 지성이 창피당하는 곳, 난파당하는 곳, 맥을 못추는 곳,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겠다. 그런데, 그런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다.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도, 적은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문자는 구별이 특징이기 때문에 문자가 그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 구체적일 것의 영역에서이다. 구별이 가능한 것은 결국 보이는 것이니까 구체적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분명히 구획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것이다, 하고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유의 대상이라는 것도 구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불교의 용어으로써 用이라고 한다. “사용한다” 할 때의 用인데, 用이라는 것은 현상계, 즉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용은 부단히 변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 그 보이는 것은 뒤에 절반이, 절반이라는 말이 어째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 뒤에 안 보이는 것이 항상 있다. 그 안보이는 것을 딱 잘라 버리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현실이다.

오늘날 불교책을 읽어 보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사들이 조사선에서 화두를 가지고 밝히고자 한 문제를 다룬 책은 거의 없다. 선종사상서다, 선학사상이다, ‘선이란 무엇인가?’ 등 별 책이 다 나오지만, 어떤 책을 봐도 결국 용의 세계에서, 즉 구별의 세계에서 서로서로를 비교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논의만 하고 있지, 그 구별의 한계를 띄우면서 도대체 구별하는 주인공인 지성 자체를 난파시키고 창피를 주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도전이 없다. 그런 문제의식은 지금 없는 듯하다. 그런데, 원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즉 기초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다. 기초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서 있는 땅은 그대로 놔두고, 그 위

에 서있는 어떤 몸짓이나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 있는 밑바탕 자체를 흔들어서 버린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 밑바탕에 해당되는 것을 體라고 부른다. 체라는 것을 우리 말로 표현하면 몸이고, 용이라는 것은 그 몸이 보여주는 몸짓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몸짓은 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몸짓만을 보았지 몸 자체는 보지를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용적인 세계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얻은 것으로 승부를 가리려고 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화두선은 우선 눈에 보이는 용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듣고 보는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니까 그 집착을 끊고, 이런 용이 나왔던 몸짓이 나왔던 몸 자체를 보게 하려는 것이다. 농사를 예로 들자면, 가지와 잎사귀에만 사로잡혀 거기서 어떤 결판을 내려고 하면 농사가 되지 않는다. 줄기와 잎사귀가 나오는 곳, 즉 안 보이는 뿌리를 보라는 것이다. 안 보이는 뿌리가 결국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지, 잎사귀와 뿌리의 관계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인생을 아는 데, 역사를 아는 데 있어서도 결국 눈에 보이는 용에 현혹되지 말고 체로 돌아가라, 눈에 보이는 몸짓에 현혹되지 말고 몸짓이 나오는 몸으로 돌아가라, 이런 운동이 다름아닌 조사선 운동이고 화두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 중국에서 선승들은 불교학자들이 찾아오면 교리를 따지지 않고 차나 한잔 하고 가라고 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 체로 돌아가는 작업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체로 돌아가는 작업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바로 지적 세계와 문자문화에 얽매어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 얽매임을 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렇게 풀어진 자유인의 상태에서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그 모든 논리적, 역사적인 지식을 따질 수 있는 철학적 능력까지도 모두 제대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 불교대학이 열댓개가 있는데, 그 불교대학의 도서관에 가보면 서가가 종파별로 분류가 되어있다. 그런데, 문자의 가치를 매도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선종의 서가에 가보면, 선종의 칸에 있는 책의 양이 화엄종이나 천태종이나 그 밖에 철학적 교의를 따지는 종파보다도 열배, 스무배가 더 많다. 즉 문자문화를 무조건 배격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문자문화에 집착해 있는 상태를 풀어주자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풀어준다는 것은 말하자면 체로 돌아가는 작업이다. 그러면 문자에 집착해 있는 상태가 풀려가지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문자를 보게 되고, 그러면 그 문자가 바로 생명을 드러

16 종교와 문화

나는 문자가 된다. 바로 그런 작업을 하자는 것이다. 화두선을 하는 선승들이 아주 좋은 데서 착안점을 찾은 것 같다.

[채록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질문과 답변, 토론 내용을 신지 못하였음.]